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 중심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희망과 일체감이라는 독특한 기별을 북미지회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2027 년 북미지회는 “모든 것을 새롭게(All Things New)”라는 방향 아래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www.nadadventist.org/allthingsnew).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을 찾기를 갈망하고 있다.”(복음, 158). 2027 년 북미지회와 세계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 이 헌금 낭독문은 예수님을 높이고, 성도들이 청지기 직분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지기부는 성도들이 이러한 비전을 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전체를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의 7T 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Time), 성전(Temple), 재능(Talents), 재물(Treasure), 신뢰(Trust), 신학(Theology), 간증(Testimony)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청지기 직분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지만 이 헌금 낭독문에서는 특히 네 번째 T 인 ‘재물(Treasure)’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더 큰 진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드리는 행위는 단순한 재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소유권과 신실하심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헌금 낭독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드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당신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먼저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행하실 일을 신뢰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세상에 그분의 소망과 회복의 기별을 전하도록 돕기 위해 이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각각의 낭독문에서 저자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과 동일합니다. 즉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분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풍부한 영상 자료도 저희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www.nadstewardship.org/videos). 특히 “나는 청지기입니다(I am a Steward)” 시리즈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거나 원하시는 경우 이 영상들을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실제 헌금 호소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약 1 분 30 초에서 3 분 정도입니다. 이 영상들과 함께 청지기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튜토리얼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맛보고 보라(Taste and See)”라는 제목의 약 4 분 길이의 짧은 영상 시리즈도 새롭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https://www.nadstewardship.org/tithes-offerings/offering-call-videos/>).

신실한 청지기 직분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드립니다:

-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관대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신실하게 베푸는 기쁨과 온전한 청지기 직분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Michael Anthony Harpe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북미지회 청지기부장

북미지회 내 청지기 부장

Marcos Bomfim, General Conference

Michael Harpe, North American Division

Tom Murray, Atlantic Union

Paul Musafili,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n Canada

Emmanuel Asiedu, Columbia Union

Vacant, Lake Union

Roy Simpson, Mid-America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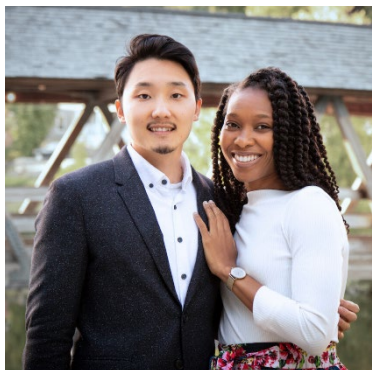
Jeff Fogelquist, North Pacific Union

Stephen Mayer, Pacific Union

David Long, Southern Union

Helvis Moody, Southwestern Union

Marcey Lachance, Guam-Micronesia Mission



스티븐과 펠리시아 리 부부는
젊은이들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사역을 함께하고 있다.

스티븐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기업가로서 리더십과 조직력, 협력을
통해 복음 사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펠리시아는 가정주부이자 New Wives Club의 설립자이며,
여성전도부장으로서 실제적인 방법과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훈련을 통해
여성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두 사람은 함께 강연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건강한 관계를
세우고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다.

낭독문에 관하여

이 자료는 추가 허가 없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단체에 의해 번역, 인쇄 또는 복사될 수 있다. 다만 재발행 된 문서에는 북미지회 청지기부라는 크레딧 라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절은 개역개정 역본을 사용했다.

주필자: Stephen and Felecia Lee

편집자: Michael Harpe, Rudy Salazar, & Lisa Rasmussen

북미지회 청지기부 © 2027

개인 헌금 계획(My Personal Giving Plan)에 관하여

북미 지회는 "개인 헌금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로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각 교인이 수입의 10 퍼센트인 십일조 외에 특정 비율의 헌금을 정해 세 가지 범주를 위해 드리도록 제안하고 있다:

- Local Church Budget (지역 교회 예산): 3-5 퍼센트
- Conference Advance (합회 지원 헌금): 1-2 퍼센트
(교육, 선교, 방학성경학교, 여름 캠프, 연합회 잡지)
- World Budget (세계 선교 헌금): 1-3 퍼센트

<https://www.personalgivingplan.com> 에 방문하면 각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다.

개인 헌금 계획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 청지기 원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독려한다. 이 계획을 통해 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지만, 이 계획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믿음에 기초한 언약에 굳게 선 우리 각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질서와 목적을 갖고 있다. 개인 헌금 계획도 마찬가지다. 다른 모든 계획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요한다. 감정이나 산발적인 헌금을 통해서서는 어떤 위대한 사역도 이룰 수 없다.

2027 년 헌금 일정 – 북미지회

특별 헌금

1 월 9 일	종교자유(북미지회)
2 월 13 일	TV 방송 선교(북미지회)
3 월 13 일	세계 라디오 선교(대총회)
4 월 10 일	국제 호프 채널(대총회)
5 월 8 일	재난 및 기근 구호(대총회 및 북미지회)
6 월 12 일	여성전도부 사역(북미지회)
7 월 10 일	세계 선교 헌금(대총회)
8 월 14 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북미지회)
9 월 11 일	세계 선교 헌금 (강조: 라디오 선교)(대총회)
11 월 13 일	세계 선교 헌금을 위한 연말 희생감사(대총회)
12 월 11 일	어드벤처리스트 커뮤니티 서비스(북미지회)

2027 년 열 셋째 안식일 헌금

1 기:	서중아프리카지회(WAD)
2 기:	남아시아태평양지회(SUD)
3 기:	유로아시아지회(ESD)
4 기:	인터-아메리카지회(IAD)

헌금 요약

지역 교회 예산	27
합회 지원 헌금	12
연합회 지원 헌금	2
북미지회	5
세계 선교	6

내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Local Church Budget(지역 교회 예산)

아마도 개인 헌금 계획에서 다루는 가장 분명한 분야는 지역 교회일 것이다. 모든 가정에서처럼 지역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기와 난방시설처럼 어떤 것들은 그 필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린이 잡지, 안식일 학교 성경 공부 교재, 교육 용품, 교직원 급여, 청소비, 교회 학교 운영자금, 보험, 학생 기금,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러한 지출은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의 빛이 되기 위해 매달 감당해야 하는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개인 헌금 계획은 수입의 3~5%를 지역 교회 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조직적인 헌금은 지역 교회의 축복과 책임을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13th Sabbath Offering(열 셋째 안식일 헌금)

여러분은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이 헛간을 건축하기 위해 어떻게 서로 돕는지 들어봤을 것이다(a barn raising- 커뮤니티 구성원 중 한 명의 헛간이 모든 구성원에 의해 집단적으로 건설되거나 재건되는 커뮤니티의 집단 행동. 역자 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도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의 목적이다. 매 열 셋째 안식일마다 전세계 모든 교회는 여러 지회 중 한 곳이 추진하고 있는 한 개의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한다. 선교 프로젝트는 주로 교육, 전도 또는 미디어 선교를 위해 사용될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된다.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은 센트럴 필리핀 재림교회 대학과 같은 학교를 설립하는 데도 사용되어왔다. 최근 드러진 헌금으로 벨리즈에 청소년 캠프를 위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다.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헌금을 드림으로 이런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13 년 열 셋째 안식일

헌금액은 474 달러였지만, 지금은 25 만 달러가 넘게 드려진다. 우리는 이 헌금을 가리켜 추가 헌금(overflow offering)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선교 헌금 외에 추가로 헌금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의 25 퍼센트는 추가분으로 간주된다. 나머지 헌금은 전 세계적인 선교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또한 십일조 봉투에 표시해서 언제든지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을 드릴 수 있다. 여러분은 큰 사역의 일부가 되어 동참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열 셋째 안식일 헌금을 기억하여 드려보라. 여러분은 세계적인 재림교회 선교 사역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다. 선교 사역을 마치기 위해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하라.

Birthday Thank Offering(생일 감사 헌금)

우리는 생일 때 보통 선물을 받는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날 오히려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생일 감사 헌금이라고 부른다. 혹시 누군가에게 감사의 선물을 줬 본 경험이 있는가? 아마도 주말 동안 당신의 고양이를 돌봐주거나 당신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불러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당신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는지 보여주고 싶어 선물을 줄 수도 있다. 교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순수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일이 그 중 하루일 수 있다.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처럼 특별한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드리기도 한다. 혹은 새 손주를 얻었을 때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순간이 될 수 있다. 교인들은 이 모든 특별 감사 헌금을 생일 감사 헌금으로써 십일조 봉투에 표시해서 드린다.

그렇다면 생일 감사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 이 헌금은 선교를 위해 복미 밖의 타 지회로 보내져 선교 활동에 사용된다. 이 헌금의 대부분은 복음 전파 활동에 사용되지만 일부는 클리닉, 병원, 교육 기관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또한 이 헌금의 일부는 선교사들을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어 재림 기별을 전파하도록 대총회 선교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서도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의 감사의 예물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교회 기관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게 된다. 이 헌금은 감사한 마음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onference Advance(합회 지원 헌금)

합회는 지역 교회들과 자매결연으로 맺어져 있어 각 교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합회 지원 헌금은 이러한 특별한 필요와 지역의 다양한 특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드려지는 헌금이다. 이 헌금의 가장 큰 사용처 중 하나는 기독교 교육 기금이다. 합회 지원 헌금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지역 사회의 복음 전파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 교회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과 홍보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어린이 전도, 도시 전도, 방학 성경 학교, 여름 캠프, 청소년 선교도 이 헌금이 지원하는 분야이다. 합회 지원 헌금의 또 다른 혜택은 인기 있는 연합회 신문과 잡지를 교인들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익한 출판물은 넓은 지역에 걸쳐 사는 교인들을 단결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들은 교인 개개인이 수입의 1~2%를 합회 지원 헌금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Mission Investment Offering(선교 투자 헌금)

선교 투자 헌금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파트너십이다. 먼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선교 투자 헌금에 수입을 헌신하는 것이다.

닭 관련 사업의 예를 들어보자. 켈리 로즈 비숍이 십대였을 때 그녀는 계란 사업의 10%를 투자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단골 손님들과 집에 들리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팔았다. 두 달 후 그녀의 매출은 50% 증가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이 역사하는 방법이다. 그녀는 수입의 10%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그녀의 몫), 그 10%는 더 큰 수입을

가져왔기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에 축복해 주셨다고 믿는다. 그 큰 수입은 하나님의 몫이었다.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쿠폰을 사용하여 절약한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외식할 때 디저트를 사먹지 않고 절약한 돈을 드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조깅을 하면서 주운 알루미늄 캔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투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한다. 이렇게 드린 모든 헌금은 재림 기별을 해외에 전파하는데 사용된다. 오늘 당신만의 선교 투자 헌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라.

Sabbath School Mission Offering(안식일 학교 선교 헌금)

안식일 학교 선교 헌금 봉투가 오면 보통 1 달러나 2 달러를 집어넣는다. 하지만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게 되면 더 드리고 싶게 될 것이다!

선교 헌금은 북미지회 외 타 지회의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진다. 이 헌금의 많은 부분이 복음 전파 활동에 사용되지만, 일부는 클리닉, 병원, 교육 기관을 돕기 위해 보내진다. 세계 라디오 선교(Adventist World Radio) 역시 이 헌금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일부는 재림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새로운 임지로 보낼 선교사를 교육하는 대총회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된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 퍼져 나간다.

World Budget Offering(세계 선교 헌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이며, 세계 선교 헌금은 이 세계적인 선교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다.

재림교회 초창기부터 재림교인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다 너머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감당해 왔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매일 3,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 200 여 개 국가에서 600 여 개 언어로 속히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선진국에 사는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구성원들의 특권과 의무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의 헌금은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개인 헌금 계획은 수입의 1~3%를 이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 정해 놓도록 제안하고 있다. 우리가 협력할 때 재림 기별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다.

Special Projects Offerings(특별 프로젝트 헌금)

이 헌금은 여성전도부와 기독교 기록 사역과 같은 사역을 포함한다. 개인 헌금 계획은 프로젝트마다 필요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정 비율을 제안하고 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러한 헌금은 지역 교회 건축 계획이나 선교 여행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특별 프로젝트에는 아드라(ADRA) 및 세계 라디오 선교(Adventist World Radio)와 같은 재림 교회 내 기관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재림교회 사역팀의 도움 요청도 포함된다.

2027 북미지회 안식일 학교 선교 투자 현금 프로젝트

ATLANTIC UNION(아틀란틱 연합회)

뉴욕합회에 있는 최초의 프랑스-아이티계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체 교회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 시설은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CANADIAN UNION(캐나다 연합회)

서스캐처원주 메도우레이크 지역에는 현재 보여지는 선교적 관심을 발전시킬 교회 개척자가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는 비공식적인 재림교인 모임이 13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그동안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섬겨 왔다. 그러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정식 교회를 개척할 전담 사역자가 필요하다.

SOUTHWESTERN UNION(사우스웨스턴 연합회)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있는 조미 재림교회는 버마(미얀마)에서 온 조미족 이민자와 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섬기고 인근 영어권 지역사회에도 봉사할 새로운 선교 및 지역사회 봉사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털사에는 약 1 만~1 만 5 천 명의 조미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 가운데 재림교회의 기반은 아직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발표자님께,

귀 교회에 본 헌금 호소문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분명 멋지고 기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기 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안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기도: 성령의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발표자님의 봉독을 통해 회중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습: 호소문을 숙지하도록 적어도 세 번 이상 읽는 것은 제안 드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읽습니다. 읽는 동안 강조할 핵심 단어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합니다. 호소문을 탁월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합니다.

준비: 때때로 특별 헌금일을 위한 자료들이 교회로 전달되어 성도들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호소문과 함께 발표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경험: 호소에 힘을 실어줄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봉독하기: 위의 모든 요소를 갖고 봉독할 수 있지만 열정이 없다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호소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발표자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027 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발표자님을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발표자님의 낭독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7 년 1 월 2 일

지역 교회 예산

7 년 전 재림청년들을 위한 연례 대회인 GYC 에서 펠리시아라는 한 젊은 여성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음식이 떨어지고 말았다. 다른 곳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한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권했다. 망설였지만 그녀는 그대로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 후 스티븐이라는 또 다른 젊은이가 줄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마침내 음식이 나오자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10 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다.

돌이켜보면서 펠리시아는 자신이 그때 기다리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지 깨닫게 되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새해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계획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사 40:31).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의 선언이 된다.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릴 때 단지 교회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우리의 수입과 계획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7 년 1 월 9 일

종교 자유 안식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종교적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파키스탄과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 북미에서는 매 안식일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 아무런 제약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특권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재림교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왔다. 지난해 창간 120 주년을 맞은 『Liberty』 잡지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자유 전문지이며, 지금도 북미지회 전역의 주요 여론 지도자들과 입법자들에게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오늘날 법정과 입법기관에서 재림교회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자유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향한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압력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을 알고 있다. 오늘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을 충실하게 높이 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2027 년 1 월 16 일

지역 교회 예산

마태복음 6 장 31 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 교회에 다닌 지 20 년이 되었든 20 일이 되었든, 우리는 결국 일상의 필요를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의 권면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된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염려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둘째,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일이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염려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문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 세운 제단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들려 한다. 이것은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삶에서 염려를 없애시는 한 가지 방법이다. 헌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의 소유주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며 왕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기로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이겨 내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027 년 1 월 23 일

합회 지원 현금

예수님께서서는 오천 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 6:12).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자.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조각들’을 그냥 흘려보냈는가? 우리에게서는 시간의 조각들이 있다. 가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신호등 앞에서 멈춰 있는 시간, 가스레인지에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시간 또는 근무가 끝나기 전 마지막 3 분 같은 시간이다. 또한 에너지 조각들도 있다. 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넷플릭스나 보고 싶을 때 남아 있는 얼마 되지 않는 힘이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버려 버리는 그 작은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말이다. 청지기의 지혜는 주인의 자원을 대부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서도 드러난다.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2 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 2 분조차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매주 좋아하는 간식에 5 달러를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모으면 한 달 동안 한 아이를 후원할 수 있는 20 달러가 된다. 매일 저녁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한 시간씩 보는 대신 그 한 시간을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보는 10 분을 배우자에게 온전히 내어 주어 부부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오늘 현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의 ‘조각들’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합회의 다양한 사역과 사업을 후원함으로써 그렇게 실천해 보자.

2027 년 1 월 30 일

지역 교회 예산

빌립보서 4 장 12 절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만족이란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는 것이다.

바울이 배부를 때나 굶주릴 때나 만족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의 원어에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예외 없이— 자신의 판단이나 외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놀라운 ‘비밀’을 직접 경험하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BibleHub.com).

만족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배워 가는 것이다. ‘찾다’는 말에는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배우다’는 말에는 과정과 발전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 이러한 만족은 단순히 정신력이나 의지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계시된 비밀이다. 바울이 발견한 만족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만족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눔은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무엇인가를 드릴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만족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구해 보라.

2027 년 2 월 6 일

지역 교회 예산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한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무력하고 순수하며, 그저 구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 어린양과 같은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 이야기 속의 양이 언제나 온순하거나 순수한 것은 아니다. 양은 종종 고집을 부리고, 길을 벗어나며, 자신을 구하러 오시는 목자에게조차 저항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목자는 여전히 찾아 나선다. 끝까지 따라간다. 양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데려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분은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용서받으며, 다시 그분의 양 떼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나눔을 위한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편할 때, 안전하다고 느낄 때 또는 그 일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만 나누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주라고 요청한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때에도 말이다.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한 우리의 헌금은 실제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한다.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우리가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한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기꺼이 풍성하게 드림으로써 목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헌금이 되게 하자.

2027 년 2 월 13 일

북미지회 TV 방송 선교

스크린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조용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안드라라는 어린 소녀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새로운 언어와 낯선 환경 그리고 점점 커지는 낙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재림교회 미디어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안드라의 이해만 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함께 자랐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시작된 일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내린 삶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 이 안드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고, 귀 기울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가?’라고 묻고 있다. 「예언의 소리」(Voice of Prophecy), 「기록되었으되」(It Is Written), 「예수 101」(Jesus 101), 「희망의 소리」(La Voz de la Esperanza), 「생명의 호흡」(Breath of Life), 「오늘을 위한 믿음」(Faith for Today)과 같은 미디어 사역을 통해 복음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전해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이러한 미디어 사역들은 목소리와 이야기 그리고 진리가 담긴 메시지를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일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다.

방송 하나하나, 프로그램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이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애 처음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러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데 도움을 준다. 누군가가 절망 대신 소망을, 혼란 대신 진리를, 침묵 대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헌금할 때 단지 미디어 사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안드라의 믿음이 자란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2027 년 2 월 20 일

지역 교회 예산

사람이 잠을 미룰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우리 대부분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미룬다. 다음 편을 하나 더 보려고 늦게까지 깨어 있기도 하고, 대화를 계속하거나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늦추기도 한다. 출근을 위해 혹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잠을 15 분 줄이는 것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 위기나 박해의 순간이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다.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내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작은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원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헌금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다. 우리의 시간과 생활 습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재물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선택이다. 때로 어려운 것은 큰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아 보이지만 나에게서는 소중한 것, 평소라면 나 자신을 위해 사용했을 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께 이렇게 여쭙어 보자. “성령님, 제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편안함입니까? 개인적인 지출입니까? 아니면 제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기억하자. 우리의 헌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겠다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

2027 년 2 월 27 일

합회 지원 헌금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더 죄에 빠져들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조차 타락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탐욕으로 자신의 직분을 악용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취했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 안타깝게도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처럼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엘가나는 신실함을 지켰다. 그는 해마다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한나가 그토록 기도하던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했다.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타락이 만연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맡겼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헌금을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헌금을 드리지 않거나 아예 그곳을 떠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는 사람들의 실패 위에 자신들의 신실함을 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들의 신실함을 세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의 헌금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헌금은 주변에서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실하게 헌금한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이 사람의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시며, 반드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2027 년 3 월 6 일

지역 교회 예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다시 본래의 불신앙으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럼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슬피 울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하고 의문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믿으려 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만적인 믿음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원수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는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그 강물에 발을 내딛자. 우리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고 내딛는 것이다.

지역 교회 예산을 위한 헌금은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을 뒷받침하며,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사역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2027 년 3 월 13 일

세계 라디오 선교(AWR)

한 주술사의 이야기

알폰스는 우간다 남서부 깊은 산골에서 강력한 주술사로 활동했다. 그는 악령의 힘을 이용한 주술을 행하며 상당한 돈을 벌었다. 68 세가 되었을 때 오랜 세월 주술에 빠져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살아왔던 알폰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알폰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보셨다. 어느 날 밤 알폰스는 꿈을 꾸었다.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자신 앞에 나타났다. 빛나는 그 사람은 알폰스에게 특정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 알폰스는 망설이지 않고 꿈속에서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자 그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잠에서 깨어난 알폰스는 그 꿈의 의미를 깨달았다. 바로 자신의 모든 주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알폰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우간다 지역에 재림교회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우리 AWR Messenger 104.2 FM 방송국이었다. 이 방송국은 우리 기술자들이 2021 년에 직접 설치한 방송국이었다. 알폰스는 라디오를 우리 방송에 맞춰 놓은 채 계속해서 방송을 들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그의 마음을 깊이 찔렀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오늘날 알폰스는 AWR 의 영향을 받아 침례를 받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여러분도 AWR 의 라디오 방송이 복음이 제한된 나라들과 다양한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각 지역의 언어와 방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또한 외딴 지역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Godpod 을 통해 평안과 소망,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2027 년 3 월 20 일

지역 교회 예산

성경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 여러분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여러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밧줄을 아래로 내려준다. 그런데 구덩이의 벽이 미끄러워 계속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그러자 구조대원들은 밧줄을 더 내려준다.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내려준다. 구덩이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밧줄을 내려주게 된다.

왜 계속 밧줄을 내려주는 것일까? 그곳에 그대로 있으라는 뜻일까? 아니다. 여러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은혜도 이 밧줄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구덩이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힘과 자비와 공급하심 곧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미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초청하신다.

믿음은 언제나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의 밧줄을 굳게 붙잡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응답하자.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십일조와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7 년 3 월 27 일

합회 지원 헌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 십자가는 사탄의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는 한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크지도 보여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큰 핏방울을 흘리신 것이 단지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 전후로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겪지는 않았다.

예수님을 짓눌렀던 것은 단지 죄의 무게만이 아니었다. 죄의 결과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도 그분을 짓눌렀다. 그 고통은 채찍에 맞는 고통이나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것은 주위를 뒤덮은 어둠이나 악한 세력의 존재보다도 더 깊은 고통이었다.

그 고통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 곧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가 거두어진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순간의 분리조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느끼셨다. 그 분리가 가져온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러진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반응도 달라진다.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며, 기꺼이 드리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릴 때 기뻐하신다.

2027 년 4 월 3 일

지역 교회 예산

누가복음 3 장 1~2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을 언급하기에 앞서 일곱 명의 인물이 등장했다. 그들은 모두 지위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궁전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거칠게 살아가며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던 한 선지자에게 임했다.

야고보서 2 장은 우리에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옷을 잘 차려 입은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외모나 지위 심지어 경제적인 능력으로 평가하기 쉽다. 우리는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에도 적용된다. 헌금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서로의 헌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위나 수입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다. 참된 헌금은 그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도 두 렵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소박한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 없이 드린 막대한 재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2027 년 4 월 10 일

국제 호프 채널

국제 호프 채널(Hope Channel International)은 100 개 이상의 언어로 900 개가 넘는 텔레비전 방송국과 디지털 선교, 모바일 플랫폼, 성경 공부 자료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에 사는 싱글맘 제니퍼는 진리를 찾고 있었다. 어느 평범한 날 그녀는 유튜브를 보며 영상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딸 이사벨라도 호기심을 느끼며 곁으로 다가와 함께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 영상은 『각 시대의 대쟁투』였다.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주적인 대쟁투를 생생하고 깊이 있게 묘사한 영상으로 호프 채널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이었다. 이 영상을 본 후 두 사람은 댓글을 남겼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 국제 호프 채널의 관계자가 이 댓글을 발견했고, 두 사람에게 연락하여 성경 공부를 제공했다.

그러나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셨다.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제니퍼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 웹사이트를 알려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5 년 5 월 10 일, 제니퍼와 이사벨라는 침례를 받았으며, 현재 호주 시드넬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활동적인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너그러운 후원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고, 가정에 소망의 기별을 전하며, 많은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2027 년 4 월 17 일

지역 교회 예산

장미를 아무리 세게 짜도 결코 악취가 나지 않는다. 오직 향기로운 향만 흘러나온다. 장미는 본래의 성질에 따라 향기를 내기 때문이다. 벌집을 짜면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하고 황금빛을 띤 꿀이 나온다. 왜 그런가? 꿀벌이 만들어 낸 꿀의 본질이 달콤함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몬을 짜면 신맛만 나온다. 레몬은 망고나 멜론처럼 달콤한 맛을 낼 수 없다. 그 본질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짓눌리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에게서는 쓴 것이 조금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흘러나왔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본성은 완전한 선함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가 짓눌릴 때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가 압박을 받는 순간 밖으로 드러난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렇게 기록했다. “달콤함으로 가득 찬 잔은 아무리 갑자기 흔들려도 쓴 물 한 방울조차 흘릴 수 없다.”

그렇다면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두려움과 망설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가?

고린도후서 5 장 17 절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본성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헌금이 그 새로운 본성을 나타내게 하자. 풍성하게 드리고, 희생적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드리자.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2027 년 4 월 24 일

합회 지원 현금

아마 여러분은 결혼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이제 교회에는 좋은 남자가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는 독신 여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여성이 여러분의 딸이나 자매, 친구일 수도 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 반대로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독신 남성들도 있다. 자신은 늘 외면당하거나 그저 친구로만 여겨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누군가를 준비해 두셨을까?” 하고 조용히 고민하는 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열왕기상 19 장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낙담에 빠진 엘리야를 만난다. 엘리야는 자신만이 남은 신실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다. 그의 눈에는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셨다. 아직도 7,000 명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 있었다. 엘리야가 그들을 볼 수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우리도 때때로 부족함이라는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다. 관계든, 기회든 심지어 재정이든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과연 모든 일이 잘 풀릴까?’ 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신실한 백성을 남겨 두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며 드리자.

2027 년 5 월 1 일

지역 교회 예산

마태복음 4 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시험했다. 우리는 흔히 시험이 어둡고 죄가 만연한 곳 곧 그리스도인이자라면 피해야 할 곳에서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가 항상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준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려 할 때 그는 종종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다. 사탄은 우리를 카지노나 난잡한 파티로 이끌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의 경계심이 풀려 있는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다. 그곳에서 시험은 더욱 조용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또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와 같은 것들이다.

사탄은 우리를 큰 범죄로 유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훨씬 더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필요를 앞세우도록 유혹할 수 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남는 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용히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교회는 예배와 교제를 위한 곳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며 살아가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포함된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단순히 반복하는 의식이 되지 않게 하자.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자. 두려움보다 믿음을, 자기 의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선택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는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자.

2027 년 5 월 8 일

재난 및 기근 구호

재림교회 지역사회 봉사회(Adventist Community Services, ACS)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심지어 그 재난이 우리 자신에게 직접 닥쳤을 때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회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대피소를 마련하고, 생필품을 나누어 주는 구호품 배분 센터를 운영했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서적·영적인 돌봄을 제공했다.

동시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부도 연기와 화재로 인해 안전하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수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많은 교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거처를 옮겨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봉사회는 바로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봉사했다. 공황과 이내 그리고 믿음으로 긴급한 필요를 채워 나갔다.

노스캐롤라이나주를 허리케인 헬렌이 강타한 후에는 지역사회 봉사회가 주(州) 단위의 구호품 창고를 마련했다. 이 창고는 9 개월이 넘도록 운영되면서 위기에 처한 수천 명의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것이 재림교회 지역사회 봉사회가 일 년 내내 수행하고 있는 사역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테네시, 뉴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삶으로 실천하며, 인종이나 성별,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준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여러분도 이 사역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후원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도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된다.

2027 년 5 월 15 일

지역 교회 예산

성경을 살펴보면 때때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창세기 20 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임신하지 못하던 아내와 여종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은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사라는 자신의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요셉과 다니엘은 왕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꿈은 해석할 수 없었다.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베풀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결코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짐을 지고 살아간다. 치유를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혹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다른 사람을 돕고 조언하며 신실하게 섬기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 헌금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는 행동만이 아니다. 헌금 자체가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특히 앞날이 불확실한 때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자. “하나님, 제 상황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2027 년 5 월 22 일

합회 지원 헌금

프랑스에서 살던 시절 나는 매일 아침 갓 구운 맛있는 바게트를 들고 빵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빵이 그렇게 맛있다면 왜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치만 사는 것일까? 아마도 프랑스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동네의 작은 빵집이 문을 열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한결같이 빵을 구워 온 동네 빵집 주인이 다음 날에도 화덕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며, 갓 구운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내일도 빵집 주인이 있을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지 못하겠는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히 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을 이겨낼 힘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가? 그분은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신다. 찰스 스펔전은 이렇게 말했다. “여행자에게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 지팡이를 한 다발 들고 다니면 오히려 짐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려 하면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매일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자. 오늘 필요한 만큼의 힘과 은혜와 승리를 공급해 주실 것을 그분께 맡기자. 내일 은혜가 부족할까 두려워 은혜를 미리 쌓아 두려고 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만나조차 다음 날까지 남겨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예레미야애가 3 장 23 절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된다고 일깨워 준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자.

2027 년 5 월 29 일

지역 교회 예산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지친 한 어머니가 새벽 2 시에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낀다. 한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연약한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의 치료비를 감당할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한 대학생은 캠퍼스를 걸으며 낙담한 채 다가오는 학기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해 다. 한 목회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직원회에 참석한다. 한 연로한 사람은 꾸준히 이력서를 보내보지만 좀처럼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성경을 찾곤 한다. 창세기 22 장 14 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더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살피실 것이다”라는 뜻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인도하심과 자원을 공급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과 맥락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이레로 나타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매우 어려운 명령 곧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였다. 바로 그 믿음과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솟양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한 이후에 나타난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채워 주실 것을 신뢰하자.

2027 년 6 월 5 일

지역 교회 예산

요한복음 11 장 28~29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신속하게 그분께 나아가는가? 회의에 가는 길에 문득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팟캐스트를 듣다가 갑자기 성경을 펼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혹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간단하게 인사를 건네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처럼 작아 보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더 큰 이끄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

우리 수입의 10 퍼센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나머지 90 퍼센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무시하게 될 것이다. 먼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어서 나머지 모든 재정도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오늘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고 신속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 주시도록 간구하자.

2027 년 6 월 12 일

여성전도부 사역 헌금

갈라디아서 6 장 9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준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복미지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있으며, 매년 진행되는 여성전도부 사역 강조일 헌금은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헌금은 여성들이 특별히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랑과 긍휼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봉사와 전도 활동을 더욱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

이 헌금으로 마련된 자원은 지역 합회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다양한 사역에도 도움을 준다. 한 교회에서는 지난겨울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교회 문을 열어 한파 쉼터를 마련했다. 여성전도부 자원봉사자들은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따뜻한 식사를 마련했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다. 그 결과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돌봄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 사역의 결과는 단순한 지역사회 봉사에 그치지 않았다. 교회의 여러 세대 여성들이 함께 봉사하면서 세대 간의 교제와 연대가 이루어지는 계기도 되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도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헌금이었다.

또한 이 헌금은 십대 소녀들을 위한 특별 주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 시간은 서로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우정을 쌓으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다.

우리의 여성전도부 헌금은 여성들을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지도자 훈련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지역 교회와 그 너머에서 지도하고, 멘토가 되어 주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한다.

2027 년 6 월 19 일

지역 교회 예산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고통스러운 일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그 기억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며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간다. 만약 사탄이 우리의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보여준다. 마치 태양을 가려 버리는 어둡고 거센 폭풍 구름처럼 이러한 암울한 가능성들은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서 나오는 빛을 가려 버린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도 우리를 빠뜨릴 수 없다면 이번에는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게 만들려고 유혹한다. 원수는 마치 정원에 있는 장미는 가리고 가시만 집중적으로 비추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예수님의 희생을 신뢰한다면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마음이 선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현재와 미래의 상황도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굳게 붙잡고, 오늘 드리는 예배의 헌금을 통해 우리의 손에 다시 힘을 얻도록 하자.

2027 년 6 월 26 일

합회 지원 헌금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매장지를 골라도 좋다며 심지어 아무 대가 없이 내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하고 정당한 값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고집했다(창세기 23 장 참조).

사무엘하 24 장에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두 이야기는 진정한 예배에는 때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정당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누군가와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제공하는 수고와 서비스의 가치까지 당연히 무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인을 받거나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교회에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는 사람에게도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다. 출장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수도 있다. 건설업자는 자녀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진작가는 연로한 부모를 돌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에게 할인을 요청할까 생각하게 되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할 때에는 잠시 멈추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이와 같은 존중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자.

2027 년 7 월 3 일

지역 교회 예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은 한 번도 알려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꾸민 거짓말을 밝혀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또한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가올 기근에 대해 야곱에게 미리 알려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알려 주셨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신실한 신앙인에게도 불확실한 시간이 찾아온다. 욕을 생각해 보자. 성경은 욕을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묘사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왜 고난이 닥쳤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지만 욕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혹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재정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박국은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합 3:17-18).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같은 믿음으로 드리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때와 선하심을 신뢰하며 드리자.

2027 년 7 월 10 일

세계 선교 헌금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세계적인 선교 사업이다. 세계 선교 헌금은 단순히 지역 교회의 헌금 항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연합과 사명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해 대륙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 전 세계의 성도들과 손을 맞잡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직접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헌금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간다. 우리의 헌금은 아직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활동을 지원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미디어 선교와 교육, 인도주의적 봉사과 같은 세계적인 사역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 헌금이 선교를 계속 이어 가게 하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일깨워 준다. 헌금은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회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기회이다.

오늘 기쁨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

2027 년 7 월 17 일

지역 교회 예산

한 선지자가 나병에 걸린 한 사람에게 고침을 받으려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인이었던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해했다. “우리나라의 강들이 이 강보다 훨씬 좋은데!”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낮추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병이 나았다.

요단강은 특별히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치유를 위해 선택하신 곳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선호와 맞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초대한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계획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심지어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신다고 일깨워 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거나 즉각적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삶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또한 돈을 올바른 자리에 놓도록 도와준다. 돈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선호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통제하려는 마음보다 믿음을 선택하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자.

2027 년 7 월 24 일

합회 지원 헌금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사기 15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한 전투를 치른 후 바위를 갈라 물을 내어 주셨다. 열왕기하 3 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의 군대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승리를 주셨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인도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가 시작했는데도 그 일이 성공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옳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며,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선택을 했음에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야 한다. 로마서 2 장 4 절은 이렇게 말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자.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단지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바란다.

2027 년 7 월 31 일

지역 교회 예산

땅에서 익어 가며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한탄하는 호박에 관한 우화가 있다. 호박은 무화과와 사과, 오렌지와 같은 다른 과일들을 부러워했다. 그 과일들은 아름다운 나뭇가지에 매달려 마치 하늘 높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주변에서는 새들이 날아다녔다.

“왜 나는 평생 땅에서 살아야 하나요?” 호박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느 날 농부가 지나가다가 슬퍼하는 호박을 발견했다. 농부는 호박이 낙심한 이유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단다! 잘 익은 무화과가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의 발에 밟혀 으깨질 수도 있지. 하지만 호박인 너는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쉽게 짓밟히지 않는단다. 만약 네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그 무게 때문에 너 자신이 깨질 뿐 아니라 아래에서 과일을 따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 너의 단단함은 땅에서 자라기에 적합하고, 더 부드럽고 연약한 과일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단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두시는 이유를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에, 더 눈에 띄는 자리에 세워지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 오늘 우리가 산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든,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신뢰하자.

오늘 십자가 아래 낮은 자리에 놓인 것에 만족하고 평안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2027 년 8 월 7 일

지역 교회 예산

어느 날 한 성경 공부 강사가 종이 한쪽에는 집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교회 건물을 그렸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가위를 건네며 교회 그림은 자르지 않고 집 그림만 잘라 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집 그림을 자르는 순간 교회 그림도 함께 잘리게 되어 있었다. 이 간단한 그림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준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부부들은 물가 상승과 빚 그리고 쉽지 않은 재정적 결정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얼마나 저축할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지를 두고 의견이 달라지면 가정 안에 긴장과 거리감, 낙심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재정 문제가 가정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면 그 영향은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까지 이어진다.

성경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행 8:3)라고 기록한다. 원수가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가정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 역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 문을 닫아걸고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셨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그렇게 하신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확실성 혹은 부부간의 의견 충돌 한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평안과 연합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주실 수 있다.

재정이 빠듯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드리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부부가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27 년 8 월 14 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

여러분이 교회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자. 예배가 시작되고 한 남성이 화면이나 주보를 바라보지만 글씨가 흐릿하게만 보인다. 그는 큰 글씨로 된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는 단순히 글씨를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조용한 수치심과도 싸우고 있다. 회복할 수 없는 시력 상실로 인해 가장 편안하고 소속감을 느껴야 할 교회에서조차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위기’다. 의사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환자는 단지 시력을 잃는 것만이 아니다. 고립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의료적인 돌봄이 끝나는 곳에서 외로움이 시작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해결책이 있다.

그 사람이 병원을 나설 때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Christian Record Services)을 통해 라이프라인 키트(Lifeline Kit)를 받을 수 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정보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연결이 담겨 있다. 이 사역을 통해 그 사람은 함께 기도해 주고, 자신의 삶에는 여전히 깊은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사람과 연결된다.

이것은 진단과 소망을 이어 주는 다리다. 그리고 모든 키트와 모든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가능해진다. 오늘 이 사역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아무도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기록 사역을 후원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들이 잊힌 존재가 아니며, 혼자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해 주자.

2027 년 8 월 21 일

지역 교회 예산

어느 날 아침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아내가 어려운 일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가 구겨진 휴지가 한 무더기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울었어요?”

“네.”

그러자 남편이 다정하게 말했다. “다음에 울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요.”

한국 속담에 “종이 한 장도 돌이 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다. 시편 56 편 8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삶에 보내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친구와 가족, 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짐을 함께 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신다.

짐이 될까 봐 혼자 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돌보실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누군가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고, 누군가는 함께 기도하며, 또 누군가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조용한 위로를 전한다.

오늘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역시 이러한 돌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의 헌금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 되도록 돕는다.

오늘도 아낌없이 드리자. 우리의 헌금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

2027 년 8 월 28 일

합회 지원 헌금

독수리와 개미, 고래가 우주 회의에 초청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구를 대표하는 존재로 초대된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회의 참석자들은 뜻밖의 결론을 내렸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이들이 같은 행성에서 왔을 리가 없다.” 독수리는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하늘을 이야기했고, 개미는 땅속에 이어진 수많은 굴을 이야기했으며, 고래는 세상에는 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행성이었지만 서로 다른 관점이었다. 각각의 관점에는 나름의 진실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전체를 보여 주지는 못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하나의 상황에도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원수는 그 상황을 여러분을 낙심시키거나 무너뜨릴 기회로 바라본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을 빛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기회로 보신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으로만 느낄 수도 있다.

하나의 문제지만 서로 다른 관점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누구의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일깨워 준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완전하며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헌금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해당된다. 우리는 헌금을 손해나 희생 혹은 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신뢰와 예배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로 보신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하자.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드리자.

2027 년 9 월 4 일

지역 교회 예산

어느 겨울 한 여성이 작은 실수를 했다. 집 뒤편에 있는 현관으로 다람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이었다.

봄이 되자 새들이 근처 관목과 데크 아래에 둥지를 짓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는 다람쥐에 대해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람쥐들이 새 둥지를 뒤흔들어서 훔쳐 먹는 것이었다.

죄는 뒷마당의 다람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죄에 조금이라도 먹이를 주면 더 큰 욕구를 가지고 다시 찾아온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자라나는지를 깨닫게 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인가? 탐욕인가?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인가? 정욕인가? 지나치게 일하도록 몰아붙이는 압박감인가? 원수는 빵 부스러기 몇 개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어느 날 아침 한 다람쥐가 계속해서 돌아와 새의 둥지를 위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여성은 자신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이었지만 더 강한 누군가가 개입해 주어야 했던 것이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구주께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표현이 되게 하자. 우리의 물질주의적인 삶의 방식과 그에 대한 유혹과 싸울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맡기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도록 하자.

2027 년 9 월 11 일

세계 선교 헌금(강조: 라디오 선교)

수십 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는 벽이나 국경, 장벽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상상해 보자. 재림교회 라디오 선교는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고 있다.

라디오는 정부의 종교 제한, 문화적 반대, 문맹,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는다. 또한 라디오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기술 매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 인구 대부분이 쉽게 접할 수 있다. 재림교회 라디오 선교는 각 나라 사람들의 모국어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재림의 소망을 전하고 있다. 현지 스튜디오의 제작자들은 100 개가 넘는 ‘마음의 언어’ 즉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모국어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제작자와 방송 시간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더 많은 언어가 추가되고 있다. 또한 많은 스튜디오에서는 성경 통신학교도 운영하여 청취자들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재림교회 라디오 선교에는 매년 청취자들로부터 10 만 건이 넘는 편지와 전화, 문자, 이메일이 접수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언어 200 개 이상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동역을 통해 이 목표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재림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미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이 기별도 세계 여러 지역의 전파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 함께 재림교회 라디오 선교에 동참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자.

2027 년 9 월 18 일

지역 교회 예산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꾸준한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느니 차라리 사자 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수할 만큼 기도에 깊이 헌신한다면 어떨까?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그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기도에 굳게 뿌리내린 사람 앞에서 사자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굳건히 설 수 있었다.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훨씬 사소한 이유로 기도를 놓칠 때가 많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기도를 뒤로 미룬다. 바쁜 아침, 직장 업무, 학교생활과 같은 일들이 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밀어내 버린다.

그러나 이처럼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은 특별한 몇몇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러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삶의 기초는 시간을 맡아 관리하는 데 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모시면 자연스럽게 재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모습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나타나게 하자.

2027 년 9 월 25 일

합회 지원 헌금

하박국 2 장 4 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고 자신의 필요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배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준다. 우리의 직업과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원은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성경은 교만과 믿음을 대조한다. 교만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다.

헌금은 우리가 그러한 신뢰를 실제로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행위다.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을 의지하는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드리자.

2027 년 10 월 2 일

지역 교회 예산

요나서에서 요나는 니스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니스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욥 4:2). 요나가 생각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과 달랐다. 요나에게 성공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대가를 받으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성공은 자비와 회개 그리고 변화된 삶이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눈에 보이는 결과나 재정적인 안정,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멋진 옷으로 성공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는가로 판단하는가?

요나는 결국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쳤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요나를 인내로 대하셨다. 요나가 겪은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니스웨 사람들에게만 다가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계셨다.

현금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에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리도록 초청하신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공의 기준을 선택하자.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자.

2027 년 10 월 9 일

연합회 지원 현금

선데이 웨셰(Sunday Wesche)라는 여성과 그의 가족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자 은퇴한 교사였던 그녀의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투자한 것마다 모두 실패했다. 결국 그는 파산을 신청했고, 가족은 집까지 잃게 되었다. 아직 두 명의 젊은 자녀가 집에 함께 살고 있었기에 그들이 처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막막했다.

그럼에도 웨셰 여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우리의 연합함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돌보심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 한다.”

퇴거 날짜가 다가오자 가족은 집을 꾸리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웨셰 여사는 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녀의 가족을 생각나게 하셨다며, 자신이 도울 일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겸손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가족에게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빈집을 당분간 사용해도 좋다고 제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족은 산속에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

2027 년 10 월 16 일

지역 교회 예산

수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기보다 당신을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호소하셨다. 다른 나라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 군사력을 의지했다. 이사야 31 장 1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는가? 삶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가 아니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가? 사업이 잘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사업 전문가를 찾아가는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결심하는가 아니면 친구에게 배우자에 대해 불평하는가? 여행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피난처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찾는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 장 15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초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돌이키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우리가 수입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먼저 찾는 분이시며 가장 중요한 도움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2027 년 10 월 23 일

합회 지원 현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핵심은 무엇일까? 단순히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아내는 것일까?

어려운 기말고사를 앞두고 두꺼운 교과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시험공부를 하던 중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한다. “시험은 15 장 하나만 나올 거야.” 그러자 다른 학생들은 당황하며 15 장에 모든 시간을 쏟기 시작한다. 15 장만 완벽하게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지 않았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예언을 공부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쉽다. 우리는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시대적 흐름에만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예언의 더 큰 목적은 이 모든 것을 보여 주시는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가리킨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재정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진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 낼 수 있는지에 있지 않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현금은 단순히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 얼마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다.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십일조와 현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숫자에서 관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친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드리자.

2027 년 10 월 30 일

연합회 지원 헌금

이사야 49 장 15-16 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진리와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다.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며, 그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 이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의 십일조와 헌금은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의 기별이 전해지도록 돕는다. 우리가 직접 방문해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지역과 도시,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는 행위가 되게 하자. 우리는 단순히 재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2027 년 11 월 6 일

지역 교회 예산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에이미 카마이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895 년, 그녀는 인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이후 55 년 동안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다.

그러나 그녀의 선교지로 향하는 여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인도에 도착하기 전 그녀는 먼저 일본으로 향했다. 항해 중 배가 거센 폭풍을 만나 항구에 들어갈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에이미와 다른 승객들은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기 위해 그물을 이용해 작은 예인선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녀가 마침내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지쳐 있었으며, 혼자였다. 그녀를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다. 낯선 땅에서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었고, 추위에 떨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훗날 이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였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재미있는 일이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이 잘될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언제나 그렇게 되었다... 나는 평온하게 돛자리 위에 앉아 천사들이 무엇을 할지 기다렸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필요는 무엇인가?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은 없는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풀릴지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재정을 그분께 맡기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지켜보자.

2027 년 11 월 13 일

세계 선교를 위한 연말 희생감사헌금

시편 50 편 5 절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성도를 너의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와 농촌 지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인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합류했다. 통계에 따르면 약 22 초마다 한 명이 재림교인이 되고, 4 시간마다 새로운 집회소 하나가 세워지고 있다. 이 놀라운 성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신실한 후원이 맺은 결실이기도 하다. 여러분의 헌금과 세계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여러 종족 가운데 수천 개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침례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도록 돌봄과 제자훈련, 격려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의 희생 헌금은 각 지역과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생명의 강물에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헌금은 새 신자들이 예수님의 강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훈련,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빛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한 번의 헌금도 수백만 명의 헌금과 하나로 합쳐진다. 재림교회 2,300 만 명 이상의 성도들은 함께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침례로 인도하고 제자로 삼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의 헌금을 드리며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를 통해 선교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자.

2027 년 11 월 20 일

지역 교회 예산

우리 대부분은 말라기 3 장 10 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쉽게 오해될 수 있다. 우리는 십일조를 신실하게 드리고 넉넉한 헌금을 하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거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신뢰했지만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신뢰했지만 칼에 죽임을 당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신뢰했지만 사자에게 던져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복을 베푸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하여 그분을 시험해 볼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면서 기억하자.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방법을 찾는다.

2027 년 11 월 27 일

합회 지원 헌금

2013 년 2 월, 한 부부가 자신들의 집 주변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중 땅에 반쯤 묻혀 있는 녹슨 금속통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부부는 그것을 파내 보았고, 그 안에서 1,400 개가 넘는 금화를 발견했다. 금화의 액면가는 약 2 만 8 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정밀하게 감정한 결과 1800 년대에 만들어진 것들로 밝혀졌으며, 그 가치는 무려 1,000 만 달러에 가까웠다.

우리 대부분은 집 뒤뜰에서 이런 보물을 발견하는 일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이다. 빗을 깔고, 집을 마련하고, 선교 사업을 후원하거나 오랫동안 미뤄 두었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변에 이미 이와 같은 보물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의미 있는 질문을 건네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얼마나 풍성한 가치를 담아 두셨는지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

오늘 재정적인 헌금을 드리면서 드림은 단지 돈을 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의 헌금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소망을 전하며,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교 사업을 후원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우리 자신도 직접 투자하기를 부르신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큰 종류의 부를 발견하게 된다. 그 부는 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으로 측정된다.

2027 년 12 월 4 일

지역 교회 예산

리처드라는 사람이 아주 넓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다. 매년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사과와 복숭아, 배를 마음껏 따 먹었다. 그런데 수확철이 끝나고 나면 나무에는 여전히 많은 열매가 남아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언제든지 과수원에 와서 아무 대가 없이 열매를 따 가도 되었다. 어느 봄 한 부부가 이 마을로 이사 왔다. 리처드는 여러 해 동안 그들에게 과수원에 와서 열매를 마음껏 따 가라고 권했다. 하지만 계절이 몇 번이고 지나가도록 그들은 한 번도 과수원에 오지 않았다. 대신 계속해서 동네 식료품점에서 과일을 사 먹었다.

어느 가을날 다른 이웃의 집을 방문한 부부는 사과가 가득 담긴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리처드의 과수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웃이 말했다. “아직도 과일이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썩어 버리고 동물들이 먹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부부는 마침내 과수원으로 갔다. 리처드가 왜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부부의 대답에 그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저희가 너무 쑥스러워서 못 왔어요. 그냥 예의상 하신 말씀이지 정말 오라고 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으러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를 붙잡는 것은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정말 진심일까 하는 의심 때문일까?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면서 기억하자.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기꺼이 초대하시는 너그러운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

2027 년 12 월 11 일

어드벤티스트 커뮤니티 서비스 (북미지회)

우리 주변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가정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지역사회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회의 틈새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이런 때에 섬김의 부르심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어드벤티스트 커뮤니티 서비스(Adventist Community Services, ACS)는 교회를 지역사회로 향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이 기억되고 있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돕는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ACS 봉사팀은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옷을 제공하며,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기 쉬운 이들에게 손을 내민다.

어느 안식일 사라는 지역 식품 나눔센터를 이용하던 한 어머니와 세 자녀의 안부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사라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망설이면서도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고, 어머니는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집에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졌으며, 앞으로 사할 동안은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힘을 아끼기 위해 조용히 침대에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사라는 깊은 연민을 느꼈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귀 기울였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날 사라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가정에 먹을 것과 소망을 전해 주었다.

어드벤티스트 커뮤니티 서비스는 북미지회 곳곳의 도시와 마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존엄을 회복할 기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2027 년 12 월 18 일

지역 교회 예산

2007 년 뉴욕의 한 가정은 작은 흰색 그릇 하나를 단돈 2 달러에 구입해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아무도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 감정을 의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릇은 10 세기에 만들어진 희귀한 중국 도자기로 밝혀졌다. 처음에는 20 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경매에서 무려 220 만 달러에 팔렸다.

그리고 2020 년에는 한 남성이 벼룩시장에서 파란색과 흰색 무늬가 있는 그릇 하나를 35 달러에 구입했다. 전문가에게 사진을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것은 15 세기에 만들어진 희귀한 도자기였으며 그 가치는 70 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물건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수년 동안 평범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누군가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너무나 귀하지만 쉽게 지나쳐 버리는 선물들이 있다. 성경도 그중 하나다. 많은 사람에게 성경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기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는 성경 한 권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신자들이 있다. 우리가 책장에 꽂아 둔 채 좀처럼 펼쳐 보지 않는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우리 지역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 안식일학교와 성경 공부, 지역사회 봉사과 전도 활동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업에 기꺼이 투자하자.

2027 년 12 월 25 일

합회 지원 헌금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거나 꾸준히 읽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이가 많은 적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빠르게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성경이 때로는 멀게 느껴지거나 별다른 흥미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 오히려 이 계절의 참된 의미를 놓칠 수도 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쇼핑과 각종 모임으로 분주한 가운데 더 깊은 의미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은하수를 바라보려는 것과 같다. 은하수는 분명 그곳에 있지만 주변의 수많은 불빛 때문에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와 생명이 가득하다. 문제는 말씀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경험할 여유가 없다는 데 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때 우리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도록 초대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초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며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한다.

오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한다. 우리의 헌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지원한다.

이번 계절에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의 넉넉한 나눔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통해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도록 하자.